

4월 1일(월) / 왕상 8-10장

▶**내용요약:**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겼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길 기도하였다. 솔로몬은 성전만이 아니라 자신의 궁전,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 하술, 므깃도, 계셀의 성 등을 세우거나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하였을 뿐 아니라 재산에 있어서도 어느 왕보다 뛰어났다. 이것은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

▶**질문:**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품, 보석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 왔던 여왕은 어느 왕국의 여왕이었나?

▶**생각하기:**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는 솔로몬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4월 4일(목) / 왕상 17-19장

▶**내용요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 삼 년이 되는 해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다.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한다.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들이 쌓은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

▶**질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잘못된 리더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으신다. 아마 북한에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 두셨을 것이다.

4월 7일(주일) / 왕하 5-7장

▶**내용요약:**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든 것을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엘리사가 조언하였고, 그 대로 하여 나아만 장관의 나병이 나았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왔을 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는 눈을 닫아 사마리아에서 포로가 되게 하였다.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내가 극심한 기

4월 2일(화) / 왕상 11-13장

▶**내용요약:**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삼아 두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방신들을 향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노역을 고되게 시키고 폭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였다. 이에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질문:** 솔로몬의 아들로서 노역을 고되게 시키고 폭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을 보았던 왕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끊어지고 멸망하는 벌을 받았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4월 5일(금) / 왕상 20-22장

▶**내용요약:**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러나 아합 왕이 한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벤하닷의 군대와 싸워서 물리쳤다. 두 번째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왔으나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하였으나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기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세벨이 계락을 꾸며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아합의 가문에 제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 예언을 듣고 아합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제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

▶**질문:** 유다 왕 아사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사를 따라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악한 왕 아합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선지자들이 있었다.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 상태에 빠졌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군인들에게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과 이에 따른 두려움을 주시어 그들이 도망간 상태였다. 이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성내에 전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여 곡식을 얻고 기근을 벗어나게 되었다.

▶**질문:** 엘리사의 시종으로 나아만 장관에게 나아가 물질을 요구하였다가 얻고, 후에 나병을 앓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4월 3일(수) / 왕상 14-16장

▶**내용요약:**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열일곱 해 재위하는 동안 그 땅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했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비야가 왕이 되어 삼 년을 재위하였다. 하지만 다윗의 길을 걷기보다는 아버지의 죄를 따라 지었다. 아비야 이후의 유다의 왕은 아사이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 이 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은 바아사 왕이었다. 이들은 모두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따라 지었다.

▶**질문:**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그의 재임기간이 7일 만에 끝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준비되지 못한 리더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4월 6일(토) / 왕하 1-4장

▶**내용요약:** 엘리야가 이 땅의 사역을 정리하고 하늘로 불림을 받아 올라갔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다.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일어난 기적은 물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자 물에 소금을 넣어 좋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잃은 여인이 빛으로 인해 두 아들을 노예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 여인에게 기적으로 많은 양의 기름이 공급되어 빛을 갠게도 하였다. 그는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 독이 없어지게 하는 기적도 행하였고, 적은 양의 음식물로 백 명의 제자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도 하였다.

▶**질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엘리사가 영적으로 어두운 북이스라엘에서 주되게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이었다. 어두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생각하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온 어린 소녀였다.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권면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이었다. 기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이 물러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렇게 아무도 알아 주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